산란율 80%이상, 20주동안 산란지속이 가능한가?

<편 집 부>

○ 다음은 캘리포니아 대학 농업분야 고문 도날드—벨이 ○
○ 쓴 논문을 간추려 소개한 것이다. 도날드—벨은 산란 ○
○ 능력의 좋고 나쁨은 사양방법 여하에 달려 있다고 강 ○
○ 조하며 20주동안 80%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
○ 상세히 기술해 주고있다.·· · ·· ·····<편집자주> ○

현대의 레그혼 산란계는 이런 능력은 있으나, 닭이 능력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는 대부분 사양방법에 달려 있다.

초산계 사양프로그램의 주목적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능력을 갖춘 닭으로 기르는데 있다.

이 목적이 달성되든 안되든 간에 우리가 산란 능력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1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요구된다.

흔히들 닭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건강하고 알맞은 체중에 도달되면 우수한 닭으로 걸렸다고 믿게된다. 초산계를 산란계사로 이동시 좋은 체형을 가진 것 처럼 보여도, 계사에 수용한 후에 흔히들 원하는 적정 수준의 성과를 못 얻고 있다.

닭의 유전적인 잠재력을 보존하라

보충계의 사육자는 두가지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첫째로는 초산계 각각의 유전적인 잠재력을 보존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고능력의 산란계로써 일생동안 유지할 수 있는 초산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들 두가지를 잘 이행한다면 양계가에게 닭은 계란 50개를 더 산란하여 줄 것이다.

육종가들은 산란지수(Hen Housed)를 260~280까지 올릴 수 있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계통들은 모두 조건들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만 된다면 90~95%까지 피—크(peak)가 올라갈 수 있다. 80% 이상의 산란율이 20주 이상 지속은 현대의 레그혼 산란계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돌에 박힌 기초 위에서 이러한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일까? 무엇이 잘 못되었기에 이러한 성과를 얻지 못하는가? 닭의 사육자가 계사에서 닭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만 한다. 많은 반복된 시험에서 사양기간 중의 닭의 일생을 통서 여러가지 형태의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영양적인 결함, 부적합한 사양, 부리 짜르기(디비킹)의 부실, 지나친 밀사, 병에 대한 면역성 부족 및 부적절한 점등의 요인 등은 더 관련있는 많은 문제들 중 몇개에 불과함에 지나지 않는다.

혈통이 좋은 닭을 선정하라

산란계 사육에 있어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첫째, 높은 산란능력으로 이름나 있는 계통에서 나온, 활력이 있고 질병이 없는 닭을 선택해야 한다. 매우 주의깊고 적절히 육추되었다면 육추기간 동안의 폐사율이 4%이하가 되어야 한다.

둘째, 사양초기에 가능한 스트레스를 최소한 줄인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 즉 닭으로

하여금 최대한 안락하게 해주어야 하며, 부화기에서 육추사까지 이동시 불필요하게 시간을 지연하지 말아야] 한다. 부화기에서 병아리들이 습관이 들었던 것과 같은 환기와 고온을 유지하고, 가능한 빨리 사료와 물을 병아리에게 주도록 해야 한다. 사료와 물이 열공급원과 가까이 있나 반드시 확인하고 모든 변화는 서서히 하도록 할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부적합한 외부의 온도와 기후로부터 격리되도록 계사관리를 해야 한다. 육추사에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요구되는 조건들이 많으며, 이들은 병아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서는 일제히 바꿀 수는 없는 것들인 것이다. 또한 발육에 좋은 사료를 급여하도록 해야한다.

넷째, 닭의 적정체중 범위 내에서 초산계를 잘 발육시킬 수 있는 영양프로그램을 선정해야 한다. 이것은 광범위한 여러가지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과도하게 닭을 과비(過肥)시킬 정도의 사양프로그램은 주의하여 피해야 한다.

다섯째, 초산계 사육 중 더 한층 중요한 것은 닭의 건강여부와 노계가 될 때까지 질병에 저항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철저한 위생관리과 적절한 면역에 관한 프로그램을 요구한다.

여섯째, 병아리는 카니벌리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리를 자르면 된다. 따라서 이 악벽이 시작하기 전, 그리고 다른 스트레스가 가장 적을 때 부리 자르기를 실시해야 한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떤 것은 매우 상해를 입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일곱째, 육종가는 특정일령에 성성숙을 하는 특별한 계통을 개발해 왔다. 왜냐하면 점등 방법의 변화로 현재의 닭이 너무 일찍 성성숙을 하여 소란을 너무 많이 낳고 산란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적절한 사양프로그램 및 점등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여덟째, 스트레스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 이동, 부리자르기, 백신주사, 기후변화, 사료변경, 새 기구와 계사, 질병 및 닥아 오는 성성숙등 모두가 초산계에 어떻든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가능한 일주일에 2개 이상의 이들 스트레스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

아홉째, 평사 또는 케이지에서 아무리 초산계를 잘 사육했다 해도 적당한 면적, 사료급여 및 급수에 적당한 공간은 실질적인 높은 산란능력에 필수적이다.

기록을 완전하게 유지하라

열째, 폐사수수, 사료소비량, 체중, 비용 백신주사 및 닭의 건강에 관한 기록은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가능한 이것들을 산란능력에 관련시키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평가는 앞으로 사육할 닭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最新家禽要論 출판!

吳世正 · 朴根植 共著 〈先進文化社〉

◎규격 및 책형 : 4 × 6배판 70모조 금박표지 596페이지

◎內容 : 양계현황, 양계경영, 닭의 기원과 품종, 해부생리, 육종개량 부화, 육추, 영양 사양, 사료 환경위생, 가금생산물, 감별 · 닭의 질병등과 각종통계 및 오리. 칠면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양계분야 집대성.

◎가격 : 2,000원 (500원 할인판매 가격임)

◎연락처 : 대한양계협회 (서울 · 중구양동44 - 28)